

경희와 함께한 사람들①-경희 매그놀리아 하우스 박기준 후원자

9



박기준 씨는 10년 전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오랜 결심에 따라 경희대 후원의 집에 참여했다.

(사진=이봄 기자)

10년 기부 이어온 카페 ‘비반트’ “오랫동안 쌓아온 정... 떠날 수가 없어요”

이봄 기자 lbom.kr@khu.ac.kr

10년 동안 묵묵히 경희대 골목 한 편을 지켜온 카페 비반트의 사장 박기준 씨는 매달 경희대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희 매그놀리아 하우스(후원의 집) 가족 일원입니다. 10년간 경희대와 따뜻한 동행을 이어온 박 씨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3세계 어린이 노동의 실태를 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그의 오랜 다짐은 경희대로 흘러들어와 지금까지도 학생들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박 씨는 카페 개업과 동시에 경희대 후원의 집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뜻 시작한 기부였지만 그는 개업 초기부터 매달 매출의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애초에 적은 돈으로 시작한 가게인데다, 가게를 오픈하고 3-4년 동안은

생각만큼 매출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기부를 도중에 멈추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경희대 학생들은 제가 가장 가까워서 접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기부를 멈출 생각은 앞으로도 전혀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박 씨의 기부금은 매년 우리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군 복무 시절 상관으로부터 우연히 커피 관련 책을 건네받은 것을 계기로 카페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2012년 경희대 골목에서 비반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던 박 씨는 10년째 경희대 학생들에게 하루의 활력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박 씨의 커피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줄곧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반트(vivant)’는 프랑스어로 ‘생기있는, 발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비반트가 들어오던 10년 전에는 회기 상권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비반트의 자리에는 포장마차들이, 그 앞에는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어두운 골목을 활기치게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그의 카페를 ‘비반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꽃피는 봄철이 되면 젊음을 즐기는 학생들의 싱그러움으로부터 인생의 활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그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면 청춘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떠올라요. 푸른 새싹이 싹트는 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박 씨도 작년 초부터 대학 상권을 공격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카페 비반트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으로 가게 이전을 고려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회기에 있는 가게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요.” 실제로 비반트 주변 많은 가게들이 빠른 속도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가게 이전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손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비반트와 회기동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해온 지금 가게에도, 또 찾아와주시는 손님들에게도 정이 들어서 쉽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경희대 교정을 산책로로 애용하는 박 씨는 교내를 거닐며 경희대 골목에서의 10년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비반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그의 부인과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또 비반트를 지나쳐갔던 경희대의 많은 학생들도 떠오릅니다. 그들에게 박 씨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건넵니다. “저는 학생들이 다가오기에 장벽이 낮은 사람이에요.” 박 씨는 웃으며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입생으로 만났던 학생들이 지금은 교직원으로, 또 병원 의료인이 되어 비반트를 찾아옵니다. 결혼 후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도 하고, 경희대 연구실 직원으로, 어엿한 회사원으로 그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연을 맺고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들이 모두들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뿌듯함과 기대감으로 그들을 응원합니다.

박 씨가 매일 커피를 내리는 카운터 바로 옆 벽면 선반 맨 윗칸에는 경희 후원의 집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가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자리한 명패를 가리키며 박 씨는 “저 곳이 가장 좋은 자리예요”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박 씨가 후원한 기부금은 어느새 천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며 자연스레 기부에 대한 마음을 키웠다는 그는 자신도 꾸준한 후원의 집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에게 언제까지나 좋은 원두로 좋은 커피를 제공하려는 것은 그가 지키고 싶은 비반트의 신념입니다. 매일 지하에서 만나절이 넘도록 원두를 로스팅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데도 지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도 새로 찾아올, 그리고 다시 돌아올 청춘들을 기다리며 카페 비반트의 문을 엽니다.